

온라인환경에서의 한국편목규칙에 대한 연구

- 표목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KCR in the On-line Environment

- Focusing on the Headings -

정옥경, 인천전문대학, 문헌정보과

Chung, Ok Kyung,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cheon Junior College

본 논문은 온라인목록시대에 돌입한 오늘날 정보자료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점이 되는 표목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KCR과 AACR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행규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온라인환경에서 표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미래에 어떠한 변화가 예견되는지를 고찰하여 온라인환경에서의 한국편목규칙의 표목부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우리나라에서 한국편목규칙이 30년간 사용되어 왔는데 근년에 자동화목록법을 위해서 'KORMARC기술규칙'이 별도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편목규칙의 표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목록의 작성을 효과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편목규칙이 필요하다. 편목규칙이 목록작성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표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편목규칙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점에 비하면 우리는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6년에 발행된 한국목록규칙 수정판까지는 기본표목의 선정과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KCR3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단행본에 대한 기술부만을 수록하고 말미에 [잘못한

표목을림지시편만 있고, 표목의 선정과 그 형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한국자동화목록형식(KORMARC Format)과 한국정보관리학회의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에 관한 연구-단행본용 포맷에서는 "기본표목은 목록규칙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목록규칙 인지를 밝히지 못한 것은 KCR3에 표목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목록작성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편목규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KCR3의 표목부의 규정이 완성되어 완전한 편목규칙으로 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편목규칙에서의 표목부의 변천과정

2.1 한국편목규칙

2.1.1 KCR과 KCR2

1964년 1월에 발행된 KCR초판은 표목의 선

정, 표목의 형식 및 기술목록규칙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저자기본기입원칙을 채택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1964. p. 114).

KCR초판을 출간한지 2년후 1966년에 수정판을 발행하였는데, 초판과 마찬가지로 저자명기본기입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KCR2의 개정위원이 KCR1과 동일하므로 목록규칙의 기본원칙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었다.

2.1.2 KCR3

1966년에 발행된 한국목록규칙 수정판까지는 기본표목의 선정과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KCR3에서는 단행본에 대한 기술부만을 수록하고 말미에 찝막한 표목을 올림지시편만 있고, 표목의 선정과 그 형식에 관한 규정이 없이 절반만의 완성편으로 발행되었다. 이는 후에 조만간에 판을 보완하여 발행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오늘날까지 이에 대한 개정 및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목록작성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편목규칙이 되도록 하루 빨리 KCR3의 표목부의 규정이 완성되어 완전한 편목규칙으로 발행되어야 할 것이다.

2.1.3 KORMARC

MARC 포맷에서는 기본표목의 선정이나 그 기술형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록의 서지기술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이미 표준화된 목록규칙(예: AACR2)에 따라 기술된 서지정보를 일정한 코드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MARC의 기술규칙은 다만 KORMARC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외적인 것이다.

KORMARC 포맷에서는 기본표목을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하고 그것을 어떠한 형식으로 기술했던 상관없이 이미 선정된 기본표목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KCR3에 표목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절반의 완성으로 된 규칙 때

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2.2 영미편목규칙

2.2.1 AACR1

AACR1에서 최초로 표목선정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이 표목선정의 전반에 걸친 지침이 되어 표목의 일관성을 가져오게 하였다. 기존규칙의 출판물의 형태나 저자의 기능보다는 Lubetzky의 지시에 따라 저자의 책임성의 결정에 입각하여 기본저록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2.2.2 AACR2

AACR2의 제21장의 접근점(Access point)은 기본저록을 중심으로 한 주요한 변화라고 하겠다. AACR2는 검색어의 선정에서 표목선정된 책은 검색요소의 선정과 표목의 형식에 대해 각장마다 일반규칙을 다루고 각 규칙마다 특정한 상태에 따른 표목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목록규칙과 같이 기본저록을 강조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저록의 개념은 저자저록의 개념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서 더욱 명확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저자개념은 개인저자의 개념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고, 단체명은 저자개념에서 분리되어 저자의 범주에서 독립되고, 기본저록의 저자저록이라는 개념은 범위가 확대되어 저자.서명저록으로 발전되었다.

2.2.3 AACR2R

AACR2R에서는 표목과 저록 대신에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용어는 전통적인 카드목록에서 온라인목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점은 편목자의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의 환경으로 기술목록에서 변한 것이다. AACR2R은 온라인 목록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표목으로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서지적 기술사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부출표목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록이용자가 기본표목이나 서명보다는 서지적 기술사항이 명시된 표목 또는 서명으로 찾을 가능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개인명, 단체명, 서명을

부출표목으로 하며, 편목시 특수규칙에 명시된 표목이외의 표목이나 서명이 필요하다면 이를 작성한다.(AACR2R,1988)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AACR2R은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점을 확대하여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3. 편목규칙에서의 표목부의 문제점

3.1 KCR3

현재 KCR3에는 표목부에 대한 규칙이 없지만 1966년에 발행된 KCR2까지는 '기본기입의 선정'과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KCR2를 기준으로 표목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나 기타 동양인명의 경우에 성다음에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이름을 기입하고 있다. 동양인명의 경우는 본래 성명순으로 기술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것은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명표목의 형식문제는 한자로 표기하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한자의 한글 표기에서도 李를 '이'와 '리'로, 柳를 '유'와 '류'로 하는 등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표준화해야 한다. 또한 만약 국제적인 통용성을 위해서 표목에 한해서는 알파벳으로 표기해야한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글의 영문표기가 표준화되지 못하여 그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또한 하루 빨리 KCR3에 표목부에 대한 규칙이 마련되고, 기술부에 있어서도 단행본이외의 비도서자료, 고서, 특수자료 등에 대한 규칙이 보완되어 국제표준화시대의 온라인목록에 부합되는 편목규칙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2 AACR2R

수작업의 카드목록시대에 적용하도록 제정되어진 목록규칙은 오늘날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수행하는 기계식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AACR에서 세 사람의 공저서나 네 사람의 공저서나 저자로서의 공헌도는 동일한데, 세 사람이내의 공저서는 저자를 기본표목으로 하고 네 사람이상의 공저서의 경

우는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공저서나 여러저자의 합저서는 그 저자수가 많고, 주저자나 책임편찬자가 없어도 모든 저자명 하에서 각각의 저작이 모두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네 사람이상의 공저서의 경우는 표목지시 사항에서 '저자명-키워드'로 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목록에서는 가능한 한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기본표목이 바로 도서기호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분류번호와 함께 자료의 서가배열의 기준이 되며, 따라서 기존의 서가배열체계와 앞으로의 배열체계가 달라져서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온라인환경하에서의 접근점

온라인목록에 있어서는 기본표목과 부출표목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다. 그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는 동일한 접근점이다. 그러나 기본표목은 도서기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도서기호는 문헌분류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모든 저록을 서명기본표목으로만 한다면 이것은 '동일한 주제 동일한 저자의 문헌을 동일한 장소에 집결시킨다'는 문헌분류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의 주요한 편목규칙들은 저자명을 알 수 없는 고전이거나, 네 사람이상의 저작이거나, 기타 특수한 저작이외에는 모든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삼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술부에서의 키워드도 접근점이 될 수있다. 서지기술은 접근점으로 파일되며, 그들로 검색된다. 그러므로 최초의 편목규칙에서부터 AACR의 가장 최신판에 이르기까지 접근점의 선택과 형식은 기술편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AACR2에서 표목(heading)과 저록(entry)대신에 사용된 접근점(access point)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카드목록에서 온라인목록에로의 변화를 의미한 것이다.

전통적인 카드목록에서는 특정형식의 기본표목을 선정하고, 이와 상이한 형식의 이름과 선

정된 표목을 참조로 연결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관련된 저작물을 목록상에서 집중하기 위하여 인명과 서명 주체명 등 접근점을 통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전거통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므로써 Cutter의 목록의 두 번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서지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목록의 기술요소가 아닌 독자, 초록 및 저자에 관한 정보가 수용되고, 한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상이한 언어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관의 목록이 외부의 다양한 서지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통합된 목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HYPERMARC와 같은 것이 개발되어 서지적관계유형을 수행하여 목록의 집중기능과 검색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리라고 본다.

5. 결론

서명기본저록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KCR3도 온라인환경에서 완전한 목록규칙이 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표목부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규칙과 포맷 표준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일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KORMARC와 KCR3의 각각의 제정이 아닌 통합규칙이 제정되는 것이 온라인환경에 적합하리라고 생각한다. 완전한 한국편목규칙이 완성되므로써 첫째, 편목규칙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서지통정을 이룰 수 있고, 둘째, KORMARC포맷에서 필드 100, 10, 111, 130은 개인명이 기본표목으로 채택될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였을 뿐 기본표목의 선정이나 그 기입형식은 어떻게 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없어 일어나는 혼란을 없앨 수 있게 된다. 셋째, 한국자동화목록법(단행본)에서 “기본표목은 목록규칙에 의해 부여된다.”고 막연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어떤 규칙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게 된다. 넷째, 목록작성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므로써 온라인환경에서 OPAC을 원활하게 운용할 있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편. 1993.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 : 단행본용(KS C55867). 서울, 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편. 1964. 한국목록규칙. 서울, 동협회.

_____. 1966. 한국목록규칙. 수정판. 서울, 동협회.

_____. 1983. 한국목록규칙3판. 서울, 동협회.

_____. 1990. 한국목록규칙3.1판. 서울, 동협회.

한국정보관리학회. 1990.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에 관한 연구 : 단행본용포맷. 서울, 국립중앙 도서관.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7.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 Chicago, ALA.

_____. 1978.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Chicago, ALA.

_____. 1988.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revised. Chicago, ALA.

Fattahi, Rahmatollah. 1995.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in the Online Environment : A Literature Review."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20, no. 2 : pp.25-50. Gorman, Michael.

1992. "After AACR2R : The Future of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in *The Origins, Content, and Future AACR2 Revised*, ed. by Richard P. Smiraglia. Chicago, ALA : pp.89-94.

Intner, Sheila S. 1988. "The Case for AACR3." *Technicalities*, vol. 8, no. 4 : pp.4-5.

Wajenberg, Arnold S. 1990. "The Future of Cataloging Standards." *Illinois Libraries*, vol. 72, no. 6 : pp. 494-497.

Winke, R. Conard. 1993. "Discarding the Main Entry in an Online Cataloging Environment."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16, no.1 : pp. 53-70.